

## 최수양론

류한승(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예전부터 최수양은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주목하여 왔다. 사회가 거대해지고 고도화될수록 사회 시스템은 사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표준화, 정형화, 체계화시킨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며, 때론 원인도 모른 채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최수양은 그것을 '식물적 상태(vegetative state)'라 지칭하였는데,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다소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작가는 그러한 사실을 감추거나 기피하기 보다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자 한다.

그의 초기(2003-2005 년) 작업의 특징은 크기가 작고 괴기스럽다는 것이다. 주로 척박한 사회 현실을 묘사하다보니 그 형상이 징그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최수양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폴리머 클레이(Polymer clay)'로 형상을 만들었다. 일반적 조각의 경우 제작에만 상당기간이 걸리지만, 폴리머 클레이는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여 크로키와 같이 순간적인 감흥을 담아내는데 유리하였고, 동시에 그 특성에 힘입어 형상들을 보다 파격적으로 변형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07 년부터 그의 조각은 커지기 시작한다. 다른 장르에 비해 조각은 실제 공간에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조각 자체의 존재감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물형상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남녀가 등을 맞대고 살이 꿰매어져 있는 [The One]은 조직사회의 구속과 숙명을 암시한다. 사람들이 붙어 있다고 관객이 착각하는 순간, 그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한 [The Heroine]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분홍색 매듭이 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의 피부를 두꺼운 실로 꿰맨 것 같은 꼼직한 형태이다. 놀랍게도 작가는 한 여자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라고 말한다. 본래 미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사회마다 나름대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며, 남성들도 이러한 여성을 선호한다. 이 여자는 완벽한 미인의 가죽을 입으면서 사회가 바라는 이상형, 즉 영웅이 된 것이다.

[The Wing]은 신체의 일부분을 파편화하여 집적한 작업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이상을 이루듯 수많은 거친 손들이 모여 하나의 날개가 되었다. 비록 사회의 입장에선 숭고한 희생이라고 칭송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선, 그가 원했건 그렇지 않던 간에, 그 희생이 잔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분자적 흐름을 물질 흐름으로 바꾸는 엄청난 폭력이 그 과정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최수앙의 조각이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해도, 그는 과거부터 현실의 사람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으며, 해부학을 기초로 인물을 이상화시키지도 않았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신체의 일부분이 변형되는데, 그 결과 독특한 형태가 나오며, 심지어 매우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형상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아마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형상이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최수앙은 사람을 꼭 빼닮은 정교한 신체조각에 극단적이고 인공적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감탄을 넘어, 내용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직접 건드리고자 한다.

특히 신체 누드조각은, 사물이 주는 뉘앙스와는 달리, 한편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고 솔직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각적이고 말초적일 수도 있다. 만약 너무 많은 변형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괴물로만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체의 일부분에 변화를 살짝 가하면, 그 형태가 제법 자극적으로 바뀐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목적은 기괴한 것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거나, 정교하게 묘사하여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수앙은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힘들의 역학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그 미시적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재발견하길 희망하는 것이다.